

# 여고생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의 지역별 비교

광주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박 우 미  
 동신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유 명 의

## 目 次

I. 서 론	2. 신체각 부위에 대한 의식구조
II. 연구방법	3. 신체에 대한 만족도
1. 연구대상 및 연구항목	IV. 요약 및 결론
2.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참고문헌
III. 결과 및 고찰	ABSTRACT
1. 조사대상자의 신체치수와 구성비	

## I. 서 론

Ryan<sup>1)</sup>은 자아개념을 신체적자아와 사회적자아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신체적자아는 개인에 의해 인지된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다. 신체적 자아는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이 그의 신체적 용모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신체영상과 개인의 이상적 신체영상이 결합될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높은 자아존중을 가지게 되지만<sup>2)</sup> 대체로 성취욕이 높은 사람이 이상형과의 틈이 커서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체형과 체중을 다르게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Secord와 1인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감정온 자아에 대한 감정과 일치하고 신체가 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을 받을 때나 불안할 때 신체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sup>3)</sup> 일반적으로 의복만족도와 의복작용과 관련되는 신체치수, 즉 체중, 키,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가슴둘

레 등에 대한 신체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높으며 많은 여성들이 가슴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작을수록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체형변화를 의복으로 최대한 보완하여 의복을 선택, 착용함으로써 자기자신을 표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sup>4)</sup>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의 단계에서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때이며, 신체의 성장과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고<sup>5)</sup> 의복만족도와 함께 외모는 청소년기의 열등감과 사회적 고립감의 원인 요소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고 슬림형을 추구하며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과민반응과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10대의 여고생들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바쁜 학교

생활로 인해 운동프로그램에는 참가를 하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육체적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여러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거식증과 같은 또 다른 병적증상을 초래하기도 하고 열등감과 사회적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긍정적인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의복행동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sup>6)~11)</sup>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에 따라 의복으로 최대한의 보완과 장점을 살려 의복을 선택, 착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지역적 생활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기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서울과, 대도시인 광주, 도서지방으로 완도의 3지역을 임의 선정하여 개인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인의 신체형에 대해 어느정도 고민하고 또는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역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총체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보고자 하며 또 이들의 전전한 의생활 지도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항목

조사대상<Table 1>은 10대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를 지역별로 분석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과 대도시인 광주, 도서지방으로 완도를 선정하였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은 집단조사법으로 하였다.

연구항목은 인체계측과 신체의식구조에 관계된 中川, 岡田등이 제작한 측정도구<sup>12), 13)</sup>를 번안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中川이 일본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에 대한 의식과 착장행동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체형분류방법을 이용하였다. 인체계측은 Martin식 계측방법으로 신장, 체중 허리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레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3항목,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본인의 견해 24항목, 고민의 유무 48항목, 신체에 대한 만족도 4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지역	N(%)	조사대상연령	N(%)
서울지역여고생	196(33.05)	15세	14( 7.14)
		16세	62(31.63)
		17세	95(48.47)
		18세	21(10.71)
광주지역여고생	193(32.55)	14세	7( 3.63)
		15세	18( 9.33)
		16세	52(26.94)
		17세	73(37.82)
완도지역여고생	204(34.40)	18세	42(21.76)
		15세	6( 2.50)
		16세	60(29.41)
		17세	45(22.06)
		18세	30(14.71)
		19세	42(20.59)

### 2.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광주, 완도 각 200명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고 인체계측은 조사자가 줄자와 Martint式 인체계측기를 이용해 직접계측하여 기록하였다. 총 600부 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서울 196부, 광주 193부, 완도 204부를 SPSS에 의한 전산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조사자료를 단순집계하여 신체에 대한 본인의 견해, 고민의 유무등을 향

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하였고 지역별 유의도는  $\chi^2$ 으로 분석하였다. 그룹별 분석은 위 中川의 연구 분류방법에 의해 가슴둘레크기는 6그룹으로 Rohrer Index는  $R.I < 1.2$ (쇠약형),  $1.2 < R.I < 1.5$ (정상형),  $R.I > 1.5$ (비만형)으로 분류하여 가슴둘레별, 신체총실지수별 고민의 정도를 분석하였고  $X^2$ 값을 구하여 지역별 유의도 검증을 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신체치수와 구성비

〈Table 2〉은 조사대상자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치수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공업진흥청에서 실시한 계측결과의 표준치수에 비해 신장은 크고 둘째항목은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체로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별의 유의도 검증 결과, 신장과 허리둘레는 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비슷한 경향이나 체중( $P < .001$ ), 가슴둘레( $P < .05$ ), 엉덩이둘레( $P < .05$ )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둘째항목에 대한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중은 광주가 평균 48.53kg으로 서울, 완도에 비해 적고 가슴둘레나 엉덩이둘레는 완도가 서울과 광주의 여고생에 비해 큰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둘째항목에서 광주지역의 여고생이 키가 크고 비교적 마른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신체치수별 구성비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으로 각

부위의 첫수분류는 中川의 연구<sup>12)</sup>에 의한 분류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보면 대체로 지역별로 서로 비슷한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장은 서울이 153~160cm와 161~172cm가 각각 92명, 95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광주와 완도는 153~160cm 그룹이 과반수 이상으로 표준체형에 속하고 있는데 키가 큰 그룹인 161~172cm에 속하는 그룹은 서울이 많아 대체로 키가 큰 그룹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체중은 45~49kg 그룹과 50~54kg 그룹이 3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의식구조

##### 1) 형태에 대한 의식구조

〈그림 1〉은 신체형태에 대한 의식구조와 지역별 유의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집단이 대체로 의식구조를 나타내는 형용어가 B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으로 신체크기가 크다, 굵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평균 2.8~3.4사이로 보통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는 정재은, 이순원<sup>14)</sup>과 박우미<sup>15)</sup>의 대학생의 신체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2.6~3.4로 20대의 여대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집단 모두가 〈넙적다리가 굵다〉는 3.5이상으로 넙적다리가 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팔이 길다〉 〈배가 나와 있다〉 〈다리가 굵다〉 〈얼굴이 타원형이다〉라고 의식하고 있었다. 지역별 유의도 검증 결과를 보면 〈배가 움푹들어

〈Table 2〉 신체치수와 집단유의도

(단위 : cm)

신체부위	서울		광주		완도		평균		F value
	M	SD	M	SD	M	SD	M	SD	
신장	163.23	32.09	164.87	49.40	159.29	4.77	157.8	4.8	1.4393
체중	51.25	7.10	48.63	6.04	51.30	5.74	52.6	6.4	11.4089***
가슴둘레	81.46	6.87	81.21	5.88	82.75	5.01	82.2	5.1	3.8564*
허리둘레	60.01	15.35	62.35	14.75	63.45	7.43	66	4.9	2.4262
엉덩이둘레	85.36	12.28	85.69	14.25	88.18	6.37	89.9	4.4	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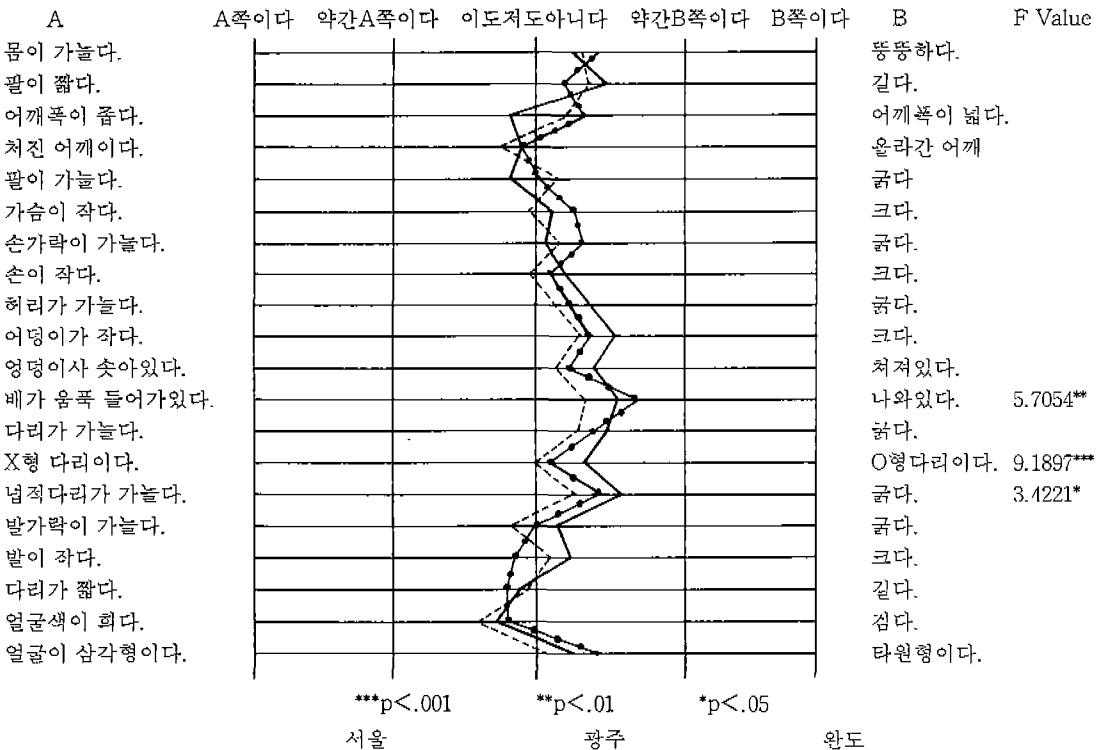
\*\*\*  $p < .001$     \*\*  $p < .01$     \*  $p < .05$

<Table 3> 신체치수별 구성

(단위 : %(N))

부 위	치 수	구 성 비			부 위	치 수	구 성 비		
		서 울	광 주	완 도			서 울	광 주	완 도
신 장	144-152	3.1(6)	6.2(12)	7.4(15)	엉덩이 들 레	72-83	25.0(49)	16.6(32)	14.7(30)
	153-160	46.9(92)	52.3(101)	57.8(118)		84-87	19.4(38)	16.6(32)	19.6(40)
	161-172	48.5(95)	77(39.9)	33.8(69)		88-91	33.7(66)	34.7(67)	43.1(88)
	173--	1.5(3)	3(1.6)	1.0(2)		92-95	13.3(26)	23.3(45)	17.6(36)
체 중	37-44	9.7(19)	21.8(42)	10.8(22)	허 리 들 레	96-	8.7(17)	8.8(17)	4.9(10)
	45-49	33.7(66)	36.3(70)	27.0(55)		54-58	16.8(33)	13(25)	11.8(24)
	50-54	32.1(63)	28.0(54)	35.8(73)		59-61	13.8(27)	7.3(14)	12.7(26)
	55-59	15.3(30)	8.8(17)	18.1(37)		62-64	18.9(37)	18.7(36)	29.9(61)
	60-74	8.2(16)	4.7(9)	8.3(17)		65-67	17.9(35)	26.4(51)	28.4(58)
	75--	1.0(2)	0.5(1)			68-73	23.0(45)	26.4(51)	13.2(27)
가 슴 들 레	68-77	12.2(24)	17.1(33)	4.9(10)	74-85	8.7(17)	6.2(12)	3.9(8)	
	78-80	31.1(61)	26.9(52)	32.8(67)	86-	1.0(2)	2.1(4)		
	81-83	19.9(39)	23.8(46)	22.5(46)					
	84-86	19.4(38)	17.6(34)	17.6(36)					
	87-97	14.8(29)	13.0(25)	21.1(43)					
	98-	0.5(1)	1.6(3)	0.5(1)					

<그림 1>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와 지역별 유의도 검증결과



있다>(P<.05)와 <X형 다리이다>(P<.001), <넓적다리가 가늘다>(P<.05)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완도의 여고생이 가장 <배가 나와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 광주 순으로 광주의 여고생이 완도에 비해 <배가 움푹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넓적다리들레에 대해서는 광주지역이 3.67, 완도가 3.52, 서울이 3.38로서 광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뚱뚱하다고 인식을 하지는 않지만 넓적다리는 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울의 여고생은 다른 지역에 비해 <O형 다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각 부위의 형태에 대한 고민의 유무

(1) 항목별 고민의 유무

<Table 4>은 신체에 대한 항목별 고민의 정도와 지역별 유의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항목별로 신체형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백분율이 50%미만으로서 신체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연

<Table 4> 신체에 대한 항목별 고민의 정도

(단위 : %(N))

	항 목	서울(N=196)	광주(N=193)	완도(N=204)
전 체	뚱뚱하다	51.0(100)	39.9(77)	44.1(90)
	어깨가 낮다	26.5(52)	20.7(40)	24.5(50)
	어깨가 높다	17.9(35)	19.7(38)	21.6(44)
	허리가 길다	27.6(54)	25.9(50)	18.6(38)
상 반 신	가슴이 크다	31.1(61)	27.5(53)	29.4(60)
	가슴이 작다	34.2(67)	31.1(60)	34.3(70)
	어깨폭이 넓다	35.7(70)	38.9(75)	39.7(81)
	어깨폭이 좁다	31.6(62)	25.9(57)	24.5(50)
	딱벌어지고 올라간 어깨다	17.9(35)	8.8(17)	14.2(29)
	쳐진 어깨이다	29.6(58)	29.5(57)	24.5(50)
	팔이 굵다	46.4(91)	38.9(75)	40.2(82)
손이 작다	37.2(73)	38.9(75)	37.3(76)	
	손이 크다	40.3(79)	36.8(71)	37.7(77)
하 반 신	허리가 굵다	46.9(92)	31.6(61)	33.8(69)
	엉덩이가 크다	61.7(121)	40.4(78)	49.5(101)
	엉덩이가 쳐져 있다	28.6(56)	28.0(54)	24.0(49)
	다리가 굵다	64.3(126)	44.6(86)	51(104)
	넓적다리가 굵다	74.5(146)	57.0(110)	58.3(119)
	발이 가늘다	38.3(75)	40.4(78)	26.5(54)
	발가락이 굵다	29.1(57)	21.8(42)	28.9(59)
	발이 크다	38.8(76)	36.3(70)	34.3(70)
	다리가 짧다	38.3(75)	35.2(68)	45.1(92)
	O형다리이다	26.0(51)	18.7(36)	12.7(26)
X형다리이다	12.2(24)	16.6(32)	8.3(17)	
얼 굴	얼굴이 크다	40.8(80)	43.0(83)	44.1(90)
	목이 굵다	25.0(49)	23.8(46)	24.0(49)
	목이 짧다	28.6(56)	25.9(50)	30.9(63)
	피부색이 검다	29.1(57)	21.8(42)	25.5(52)
	피부색이 희다	38.3(75)	37.8(71)	33.3(68)
	얼굴이 원형이다	39.3(77)	44.0(85)	32.4(66)
	얼굴이 사각형이다	14.3(28)	12.4(24)	11.3(23)

구결과<sup>15)</sup>인 20대의 결과와 유사하고 일본의 中川<sup>12)</sup>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신체 전반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지역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뚱뚱하다>의 항목에 대해서는 3지역 모두 40%이상이 대체로 고민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Wooley<sup>16)</sup>에 의하면 3300명의 여성들에게 본인의 신체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실제 신체치수는 25%가 과잉체중이고 30%가 과소체중이었지만 75%정도가 너무 뚱뚱하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이처럼 실제체형에 비해 인지체형을 더 뚱뚱하다고 인식하면서 고민을 호소하는 경향이며 특히 서울에서는 51% 정도의 과반수 이상이 뚱뚱하다고 고민을 하고 있어 대도시인 서울지역의 여고생이 체형의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신체에 대한 불만이 많고 거식증이 많다고 하는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sup>12)</sup> 다음으로는 서울과 광주 지역의 여고생은 <허리가 길다>에, 완도는 <어깨가 낮다>의 항목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는 20대의 여대생이나 주부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다.<sup>15)</sup> 상반신은 3지역 모두가 <팔이 굵다>에 고민의 정도가 크고 이는 여대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sup>15)</sup> 가슴에 대해서는 <가슴이 크다> 보다 <가슴이 작다>항목에 고민을 더 하고 있어 주부들은 가슴이 큰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젊은 여성들이 가슴이 큰 것을 원하는 경향이였다. 하반신에 대해서는 <넙적다리가 굵다> <다리가 굵다> <엉덩이가 크다> 는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현실적으로 넙적다리나 다리가 굵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다른 부위에 비해 고민이 크고 특히 <넙적다리가 굵다>에 대해서는 서울이 74.5%, 광주는 57.0% 정도로 광주는 본인이 넙적다리가 굵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고민을 다른 지역에 비해 하지 않아 비교적 긍정적이며 서울은 거의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대도시인 서울지역이 길고 늘씬한 다리에 대한 욕망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허리가 굵다> <발이 크다> <다리가 짧다>항목도 30% 이상이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하반신에 대한 고민은 여대생이나 주부의 결과와도 일치하고<sup>15)</sup> 일본의 여대생의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sup>12)</sup>를 보여 연령과 지역에 관계없이 하반신에 대한 고민은 많이 갖고 있었다. 얼굴의 경우 <얼굴이 크다>의 항목에 40%이상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얼굴형이 원형이다> <얼굴형이 사각형이다>의 항목에도 30%이상이 고민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역별 유의도 검증 결과를 보면 하반신을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부위별 고민의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반신은 <허리가 굵다>(P<.05) <엉덩이가 크다>(P<.01) <다리가 굵다>(P<.05) <넙적다리가 굵다>(P<.05)의 항목이 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4항목 모두가 서울지역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다음으로 완도,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조사대상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민의 정도가 작아 본인의 신체형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 (2) 집단별 고민의 유무

<Table 5>는 가슴둘레치수에 따른 신체에 대한 고민의 정도를 나타낸 것인데 3中川의 사이즈분류<sup>12)</sup>에 의해 분류하였다. 中川은 일본 여자학생의 신체에 대한 의식과 착장행동 연구에서 JIS의 성인 여자용 의복 사이즈 규격을 참고로 하여 가슴둘레 사이즈 및 가슴둘레, 허리둘레, 신장에 의한 체형을 분류한 것을 따른 바, 서울과 광주는 5그룹, 완도는 6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목간의 유의성이 있는 항목만을 제시하였다.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뚱뚱하다> <팔이 굵다> <가슴이 크다> 항목은 3지역이 공통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가슴둘레가 클수록 <뚱뚱하다> <팔이 굵다> <가슴이 크다>에 고민이 많았다. 가슴둘레가 표준인 81~83cm그룹에서 <뚱뚱하다>항목의 경우 서울은 56.4%, 광주는

43.5%, 완도는 52.2%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팔이 굵다>는 서울은 48.7%, 광주는 32.6%, 완도는 50%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가슴이 크다>는 서울이 21.3%, 광주가 26.1%, 완도는 30.4%였다. 이를 보면 대도시인 서울

에서 표준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뚱뚱하고 팔이 굵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광주지역의 여고생들이 고민의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자기 신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슴둘레가 표준

<Table 5> 가슴둘레치수에 따른 고민의 정도와 분산분석결과 (서울)

(단위 : %(N))

항목	그룹	%(N)	Exp. value	항목	그룹	%(N)	Exp. value
뚱뚱하다 $\chi^2=44.2157^{***}$	1	16.7(4)	12.0	가슴이 크다 $\chi^2=20.3231^{**}$	1	16.7(4)	8.1
	2	31.1(19)	30.5		2	21.3(13)	20.7
	3	56.4(22)	19.5		3	35.9(14)	13.2
	4	60.5(23)	19		4	39.5(15)	12.9
	5	93.1(27)	14.5		5	62.1(18)	9.8
	6	0	0		6	100(1)	3
어깨폭이 좁다 $\chi^2=20.5213$	1	50.0(12)	7.6	어깨폭이 넓다 $\chi^2=23.6100^{**}$	1	16.7(4)	8.5
	2	44.3(27)	19.4		2	24.6(15)	21.6
	3	33.3(13)	12.4		3	25.6(10)	13.8
	4	13.2(5)	12.1		4	57.9(22)	13.5
	5	13.8(4)	9.2		5	55.2(16)	10.3
	6	0(0)	0.3		6	100(1)	0.4
허리가 굵다 $\chi^2=28.9829^{**}$	1	12.5(3)	7.1	팔이 굵다 $\chi^2=21.6613^*$	1	16.7(4)	11.3
	2	39.3(24)	28.3		2	39.3(24)	28.6
	3	48.7(19)	18.1		3	48.7(19)	18.3
	4	47.4(18)	17.6		4	52.6(20)	17.8
	5	82.8(24)	13.4		5	75.9(22)	13.6
	6	100(1)	5		6	100(1)	5

(광주)

항목	그룹	%(N)	Exp. value	항목	그룹	%(N)	Exp. value
뚱뚱하다 $\chi^2=24.3728^{**}$	1	21.2(7)	13.5	팔이 굵다 $\chi^2=15.5997^*$	1	27.3(9)	12.9
	2	26.9(14)	21.3		2	28.8(15)	20.3
	3	43.5(20)	18.9		3	32.6(15)	17.9
	4	52.9(18)	14.0		4	55.9(19)	13.2
	5	76.0(19)	10.3		5	64.0(16)	9.7
넓적다리가 굵다 $\chi^2=19.6754^{**}$	1	51.5(17)	8.3	가슴이 크다 $\chi^2=18.7257^{**}$	1	12.1(4)	9.2
	2	23.1(12)	13.1		2	17.3(9)	14.5
	3	21.7(10)	11.6		3	26.1(12)	12.8
	4	17.6(6)	8.6		4	44.1(15)	9.5
	5	12.0(3)	6.3		5	52.0(13)	7.0
가슴이 작다 $\chi^2=19.2585^{**}$	1	60.6(20)	10.2	어깨폭이 좁다 $\chi^2=15.8532^*$	1	51.5(17)	8.3
	2	28.8(15)	16.1		2	23.1(12)	13.1
	3	30.4(14)	14.3		3	21.7(10)	11.6
	4	14.7(5)	10.6		4	17.6(6)	8.6
	5	20.0(5)	7.8		5	12.0(3)	6.3

(완도)

항 목	그룹	%(N)	Exp.value	항 목	그룹	%(N)	Exp.value
똥똥하다 $\chi^2=23.8689^{**}$	1	0(0)	4.4	팔이 굵다 $\chi^2=18.6641^*$	1	0(0)	0.4
	2	34.3(23)	29.7		2	31.3(21)	27.1
	3	52.2(24)	20.4		3	50.0(23)	18.6
	4	41.7(15)	16.0		4	33.3(12)	14.5
	5	65(28)	19.1		5	59.1(25)	17.4
	6	0(0)	0.4		6	100(1)	0.4
허리가 굵다 $\chi^2=25.0631^*$	1	100(1)	3.4	가슴이 크다 $\chi^2=23.8689^{**}$	1	0(0)	3.0
	2	26.9(18)	22.8		2	14.9(10)	19.8
	3	26.1(12)	15.6		3	30.4(14)	13.6
	4	27.8(10)	12.2		4	36.1(13)	10.6
	5	65.1(28)	14.6		5	51.2(22)	12.7
	6	0(0)	0.3		6	100(1)	0.3
발이 크다 $\chi^2=17.3335^*$	1	30.0(3)	3.4	가슴이 작다 $\chi^2=26.9705^{**}$	1	70.0(7)	3.4
	2	22.4(15)	23.1		2	53.7(36)	23.1
	3	30.4(14)	15.9		3	21.7(10)	15.9
	4	33.3(12)	12.4		4	16.7(6)	12.4
	5	58.1(25)	14.8		5	25.6(11)	14.8
	6	100(1)	0.3		6	0(0)	0.3

\*\*\* p<.001    \*\* p<.01    \* p<.05

인 그룹의 경우<가슴이 크다>에서는 서울지역의 여고생이 가장 고민을 적게 하고 완도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로 갈수록 가슴이 큰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서울은 <허리가 굵다> <어깨폭이 넓다> <어깨폭이 좁다>의 항목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어깨폭에 대한 관심이 많고 광주지역은 <넙적다리가 굵다> <어깨폭이 좁다> <가슴이 작다>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가슴둘레가 클수록 <넙적다리가 굵다> <어깨폭이 좁다> <가슴이 작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완도는 <허리가 굵다> <발이 크다> <가슴이 작다>의 항목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광주와 완도는 <가슴이 크다> <가슴이 작다> 모두에 고민을 가지고 있어 가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표준그룹인 2그룹에서 <허리가 굵다>의 항목을 보면 서울이 39.3%, 완도가 26.9%정도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를 볼 때 서울지역의 여고생이 표준그룹임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굵다고 생각하

여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는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고민의 유무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항목만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신체충실지수의 그룹별 분포는 서울, 완도는 표준형이 52%, 63.6%로 가장 많고 광주는 1그룹이 61.1%로 많았다.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고민의 유무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3지역 공통적으로 <똥똥하다> <팔이 굵다> <다리가 굵다> <넙적다리가 굵다> 였다. 이는 공통적으로 비만에 가까울수록 <똥똥하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넙적다리나 다리가 굵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리가 짧은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표준형에 해당하는 2그룹의 경우 <똥똥하다>항목에서 서울은 70.6%, 광주는 55.9%, 완도는 49.2%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표준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로 갈수록 똥똥하다고 생각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넙적다리가 굵다> <다리가 굵다>의 항목도 같은 결과를 보여 표준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대



<Table 6> 신체총실지수에 따른 고민의 정도와 분산분석결과  
(서울)

(단위 : %(N))

항 목	그룹	%(N)	Exp. value	항 목	그룹	%(N)	exp. value
똥똥하다 $x^2=49.8378^{***}$	1	23.3(20)	43.9	팔이 굵다 $x^2=21.8236^{**}$	1	27.9(24)	39.9
	2	70.6(72)	52.0		2	59.8(61)	47.4
	3	100(8)	4.1		3	75.0(6)	3.7
엉덩이가 크다 $x^2=10.1241$	1	44.2(38)	53.1	다리가 굵다 $x^2=40.9430^{***}$	1	39.5(34)	55.3
	2	74.5(76)	63		2	83.3(85)	65.6
	3	87.5(7)	4.9		3	87.5(7)	5.1
넙적다리가 굵다 $x^2=11.1049^*$	1	62.8(54)	64.1	허리가 굵다 $x^2=17.6600^*$	1	31.4(27)	40.4
	2	83.3(85)	76		2	56.9(58)	47.9
	3	87.5(7)	6		3	87.5(7)	3.8
목이 짧다 $x^2=15.7369^*$	1	17.4(15)	25	다리가 짧다 $x^2=12.0188^*$	1	27.9(24)	33.3
	2	35.3(36)	29.7		2	50.0(51)	39.6
	3	10.5(6)	2.3		3	12.5(1)	3.1

(광주)

항 목	그룹	%(N)	Exp. value	항 목	그룹	%(N)	Exp. value
똥똥하다 $x^2=15.5494^*$	1	29.7(35)	47.7	팔이 굵다 $x^2=32.7844^{***}$	1	22.9(27)	45.9
	2	55.9(38)	27.5		2	64.7(44)	26.4
	3	71.4(5)	28		3	57.1(4)	2.7
목이 굵다 $x^2=17.5358^{**}$	1	14.4(17)	28.7	가슴이 크다 $x^2=15.0502^{**}$	1	17.8(21)	32.4
	2	38.2(26)	16.6		2	41.2(28)	18.7
	3	57.1(4)	1.7		3	57.1(4)	1.9
허리가 굵다 $x^2=27.3715^{**}$	1	19.5(23)	37.3	엉덩이가 크다 $x^2=17.1638^{**}$	1	29.7(35)	37.3
	2	47.1(32)	21.5		2	54.4(37)	21.5
	3	85.7(6)	2.2		3	85.7(6)	2.2
다리가 굵다 $x^2=14.0259^{**}$	1	33.9(40)	52.6	넙적다리가 굵다 $x^2=15.1573^{**}$	1	46.6(55)	67.9
	2	61.8(42)	30.3		2	73.5(50)	39.1
	3	57.1(4)	3.1		3	85.7(6)	4.0
다리가 짧다 $x^2=13.3297^{**}$	1	26.3(31)	42.2				
	2	48.5(33)	24.3				
	3	71.4(5)	2.5				

(완도)

항 목	그룹	%(N)	Exp. value	항 목	그룹	%(N)	Exp. value
똥똥하다 $x^2=30.7143^{***}$	1	21.3(13)	26.9	팔이 굵다 $x^2=31.5362^{***}$	1	11.5(16)	24.5
	2	49.2(64)	57.4		2	10.0(13)	52.3
	3	100(3)	5.7		3	0(0)	5.2
다리가 굵다 $x^2=24.2542^{***}$	1	24.6(15)	31.1	넙적다리가 굵다 $x^2=19.4102^{***}$	1	36.1(22)	35.6
	2	62.3(81)	66.3		2	66.2(86)	75.8
	3	61.5(8)	6.6		3	84.6(11)	7.6
목이 굵다 $x^2=21.0801^{***}$	1	4.9(14.7)	14.7	목이 짧다 $x^2=21.2066^{***}$	1	9.8(6)	18.8
	2	30.0(31.2)	31.2		2	37.7(49)	40.1
	3	53.8(3.1)	3.1		3	61.5(8)	4.0

\*\*\* p<.001    \*\* p<.01    \* p<.05

도시에서 50%이상이 자신의 신체가 뚱뚱하고 다리가 굵다고 생각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쇠약범주형에 속하는 그룹에서 광주가 29.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표준형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긍정적이지만 쇠약범주형에서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고민을 더 하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지역별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서울은 <엉덩이가 크다> <다리가 굵다> <허리가 굵다> <목이 가늘다> <목이 짧다>이고, 광주는 <엉덩이가 크다> <허리가 굵다> <다리가 굵다> <목이 굵다> <가슴이 크다>, 완도는 <목이 굵다> <엉덩이가 작다> <발이 가늘다> <목이 가늘다> <목이 짧다>의 항목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 3.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Table 7>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고 <Table 8>은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지역별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수치가 클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만족도의 평균은 지역별로 전체적인 스타일에 대해 서울은 3.49, 광주가 3.37, 완도가 3.39로 나타나 만족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신체의 각 부위에서는 서울의 여고생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광주의 여고생은 본인의 신체에 대해 서울보다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7>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의 지역별 비교

지 역	점 수	전 체	상 반 신	하 반 신	얼 굴
서 울	만족한다	5.1(10)	9.2(18)	5.1(10)	1.0( 2)
	약간 만족한다	17.9(35)	16.3(32)	12.2(24)	21.4(42)
	그저그렇다	29.6(58)	25.5(50)	18.9(37)	29.1(57)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18.9(37)	17.3(34)	19.4(38)	19.9(39)
	만족한다	28.1(55)	31.6(62)	44.4(87)	28.6(56)
광 주	만족한다	4.1( 8)	4.1( 8)	4.7( 9)	5.7(11)
	약간 만족한다	14.0(27)	18.1(35)	10.9(21)	16.6(32)
	그저그렇다	41.5(80)	37.3(72)	28.0(54)	42.0(81)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21.2(41)	17.6(34)	21.8(42)	14.5(28)
	만족한다	19.2(37)	22.8(44)	34.7(67)	21.2(41)
완 도	만족한다	5.4(11)	6.4(13)	5.9(12)	3.9( 8)
	약간 만족한다	13.2(27)	13.7(28)	7.8(16)	17.2(35)
	그저그렇다	34.3(70)	34.8(71)	22.5(46)	40.7(83)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31.4(64)	21.1(43)	24.5(50)	18.1(37)
	만족한다	15.7(32)	24.8(49)	39.2(80)	20.1(41)

<Table 8>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의 지역별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

구 분	평 균			D,F	F value
	서 울	광 주	완 도		
전 체	3.49	3.37	3.39	2	0.6223
상반신	3.46	3.37	3.43	2	0.2797
하반신	3.85	3.71	3.43	2	0.8274
얼 굴	3.53	3.29	3.33	2	2.6344

\*\*\* p<.001    \*\* p<.01    \* p<.05

신체 부위별로 보면 하반신은 서울이 44.4%, 광주가 34.7%, 완도가 39.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3지역이 공통적으로 하반신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체의 슬림형에 하반신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의복만족도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로서 청소년기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체형에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고민하고 만족하고 있는지를 서울, 광주, 완도의 3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측치에 대한 실제체형은 공진청에서 실시한 표준치수와 비교하여 3지역이 모두 평균그룹에 속하고 키가 크고 들레항목은 작아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들레항목에서 지역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으며 완도가 키가 작고 들레항목이 큰 편이었다.

2.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는 형용어의 B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으로 3그룹 모두가 크다, 굵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배가 움푹 들어가 있다> ( $P < .05$ )와 <X형 다리이다> ( $P < .001$ ), <넙적 다리가 가늘다> ( $P < .05$ )는 지역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완도의 여고생이 가장 <배가 나와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 광주 순으로 광주의 여고생이 완도에 비해 <배가 움푹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넙적다리들레에 대해서는 광주지역이 3.67, 완도가 3.52, 서울이 3.38로서 광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뚱뚱하다고 인식을 하지는 않지만 넙적다리는 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항목별 각 부위에 대한 고민의 정도를 보면 <뚱뚱하다>가 3지역 모두 40% 이상이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지역은 51% 정도의 과반수 이상이 뚱뚱하다고 고민을 하고 있어 체형의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반신의 <넙적다리가 굵다> <다리가 굵다> <엉덩이가 크다>는 50% 이상이 고민을 하고 있어 다른 부위보다 많이 고민을 하고 <넙적다리가 굵다>에 대해서는 서울이 74.5% 정도로 거의가 고민을 하고 있어 길고 날씬한 다리에 대한 욕망이 크게 나타났다. <허리가 굵다> ( $P < .05$ ) <엉덩이가 크다> ( $P < .001$ ) <다리가 굵다> ( $P < .05$ ) <넙적다리가 굵다> ( $P < .05$ )의 항목이 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 가슴들레치수에 따른 고민의 정도는 <팔이 굵다> <뚱뚱하다> <가슴이 크다>의 항목이 3지역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가슴들레가 클수록 <팔이 굵다> <뚱뚱하다> <가슴이 크다>에 고민이 많았으며 가슴들레가 표준그룹에서 <뚱뚱하다> 항목에 서울은 56.4%, 광주는 43.5%, 완도는 52.2%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표준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뚱뚱하고 팔이 굵다고 고민하고 있었다.

5.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고민의 유무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3지역 공통적으로 <뚱뚱하다> <팔이 굵다> <다리가 굵다> <넙적다리가 굵다>였다. 이는 공통적으로 비만에 가까울수록 <뚱뚱하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넙적다리나 다리가 굵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리가 짧은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표준그룹에서도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뚱뚱하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6. 신체만족도의 평균은 지역별로 전체적인 스타일에 대해 서울은 3.49, 광주가 3.37, 완도가 3.39로 나타나, 광주의 여고생은 본인의 신체에 대해 서울보다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로 볼 때 광주지역의 여고생이 키가 크고 날

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은 계층체에 의하면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이지만 완도지역에 비해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하고 있었으며 신체의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Ryan, M.S.(199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2)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각
- 3) Secord, P.F. & Jourard, S.C.(1974), Fundamentals of counseling, Boston : houghton Mifflin.
- 4) 정삼호(1988),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가정문화논의, 2.
- 5) 장병립(1966), 청년심리학, 서울 : 범문사
- 6) Richard, E.A. and R.E. Hawthorne(1971),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 of Home Ecinomics, 3.
- 7) Stone, G.P.(1965) Appearance and the self Roach, M.E. and Eeicher, J.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8) Clayton, Jennon, S.J. & Larkin, J.(1987), Perceived fashionability of garment as inferred from the age and body of the wearer, H.E.R.J., 15, 4.
- 9) Jourard, S.M. & Secord, P.F.(1955), Body-cathexis and the ideal female figure, J. Abnorm. Soc. Psychol. 50.
- 10) 이영운(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11) 임춘봉(1974),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12) 中川早苗(1989), 女子大學生の 身體に對する意識と着裝行動との關聯について,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0, 11, 575p.
- 13) 岡田宣子(1988), 日本家政學會誌, 39, 699p
- 14) 정재은 · 이순원(1993), 20대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 3
- 15)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 1
- 16) Wooley, S. & Wooley, O.(1984), Feeling fat in a thin society, Glamour, 82.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 about Somatotype for High School Girls for Region

Several aspects of conscious about somatotype were analysed for high school girls among Seoul, Kwangju, Wando.

Questionnaires was comprised of 24 item of the conscious about somatotype, 52 item of agreement about somatotype. Questionnaires were sent to sample of students of high school. The data from 593 respondants were analysed in using Freequency,Crosstab, and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High school students in Wando tend to have shorter and fatter than Seoul and Kwangju. 2. Respondents were conscioused of <a pot belly>, <a thick thigh>, <O-shape legged>. 3. Of the trouble of somatotype, respondents of all region have troubled about <a fat body>, <a thick waist>, <a fat hip>, <a thick thigh>, <heavy legged> It was founded that Respon-

dents in Seoul have much the trouble about <a fat body>, <a thick thigh> than other regions.  
4. Mean of Agreement of somatotype were scored 3.49 in Seoul 3.37 in Kwangju, 3.39 in Wando. It was founded that respondents in

Seoul were not satisfied more than Kwangju, Wando. And then Respondents in Seoul have strong aspiration to be slim about somatotype although they are a stansard somatotype.